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Pontifical Foundation of the Catholic Church, Aid to the Church in Need

전화: 02)796-6440 팩스: 02)796-6439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67 8층 (신수동, 대승빌딩)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후원계좌: 신한 100-031-121620 (사)에이드투더처치인디코리아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idtothechurchinneed



제 4호 · 2016.05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려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18-20)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에 앞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당신의 힘이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에 절대적으로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한의 힘에 의거하여 제자들을 파견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선포하는 신성한 사명은 제도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의 정치 세력, 문화, 종교에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선교의 권한을 밝힐 때 주제넘고 오만하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자주 욕을 먹고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시대를 초월하며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명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님,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

코 세속적 의미에서 “온 세상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 만물을 초월하시며 그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 분을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에페 1,22 참조) 예수님이 성사와 성체와 복음 말씀과 성령을 통해 교회 안에 살고 계십니다. 성령은 인간의 마음 속 가장 깊은 열망에 답을 주므로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두려워하며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따를 수 있

교회학자’이자 ‘선교사업의 수호자’로 선포된 리지외의 소화 테레사 성녀는 이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거창한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가르치거나 순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대신 애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행위를 통해 제 사랑이 드러나게 하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꽃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아무리 작은 희생, 눈길, 말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매사를 사랑의 마음으로 행함으로써 아무리 하찮은 것에서도 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의 핵심이자,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사명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으며 오만하고 권력을 팀하는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불가능해 보일

지라도 우리는 감히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자비를 행하는 단순한 행위에서 샘솟아 오릅니다. 특히 ‘보편교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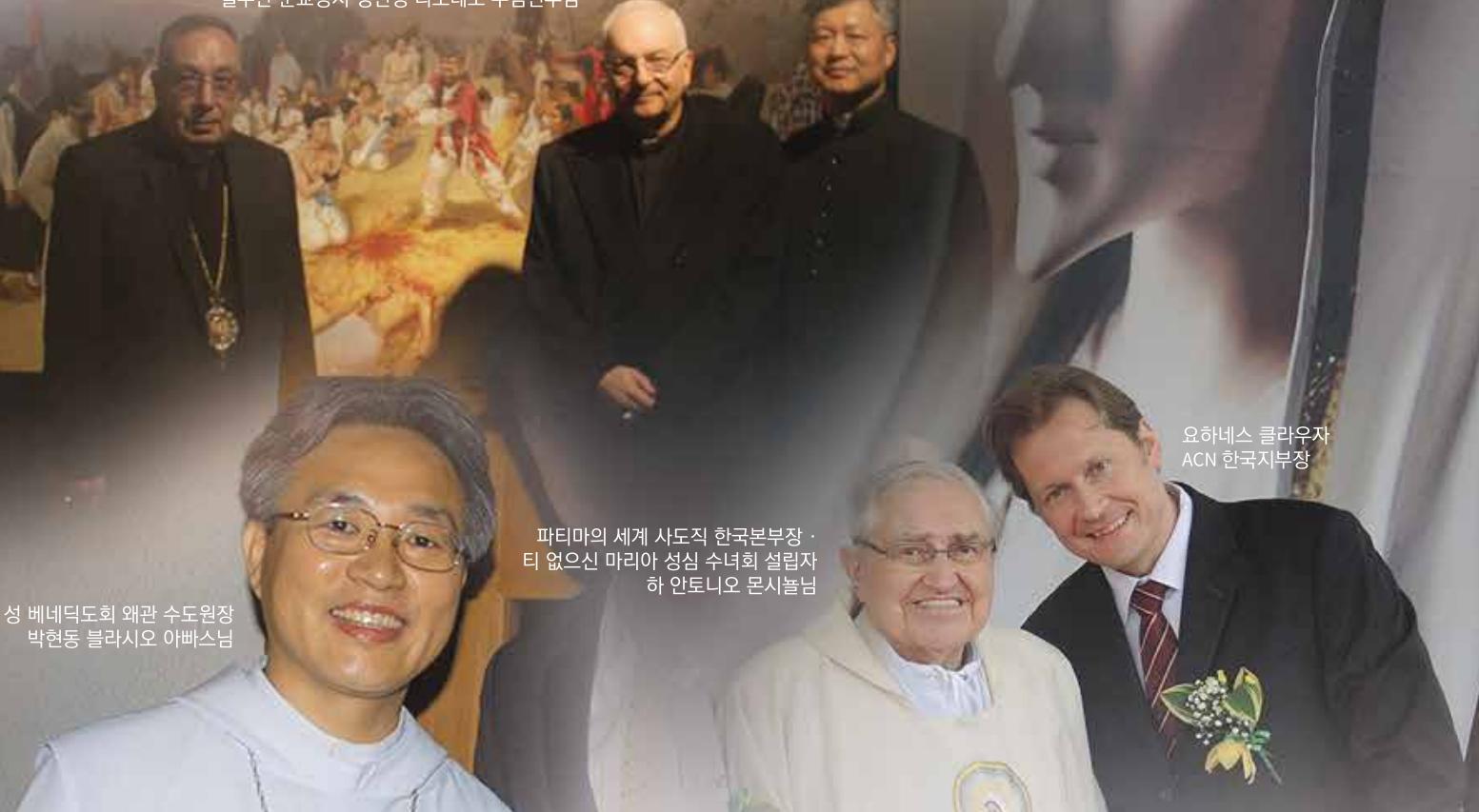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작은 희생과 작은 수고를 통해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 끝까지 펴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마르틴 바르타 신부
국제 ACN 지도 신부



교황청 내사원장·국제 ACN 재단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님,
시리아 흄스대교구장 장-아브도 아르바흐 대주교님,
절두산 순교성지 정연정 티모테오 주임신부님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장
박현동 블라시오 아버스님

요하네스 클라우자
ACN 한국지부장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한국본부장 ·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설립자
하 안토니오 몬시뇰님

ACN 한국지부를 통해 도움의 손길을 전해 주신 공동체

2015.11 ~ 2016.05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서울대교구 목5동성당
수험생 학부모 기도모임
서초 성서백주간모임
예수 수도회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
서울대교구 양천성당
대구대교구 신서성당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절두산 순교성지

시홍동성당 북카페 새오름
성가정 재단
서울대교구 고척동성당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서울대교구 성내동성당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서강대학교 교목처
사랑나눔

이 외에도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면상 개인 후원자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경룡 아우구스티노
주임신부님

ACN 한국지부에서는 지난 4월 30일과 5월 1일 이틀에 걸쳐 서울대교구 성내동성당을 방문하였습니다. 신자분들께 시리아의 형제자매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 드리고, 그들의 심사가를 함께 짚어지기를 부탁드렸습니다. ACN 방문단이 중동지역에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하셨던 시리아 험스대교구장 장-아브도 아르바흐 대주교님과 레바논의 알버트 아비 아자르 신부님의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생명주일이자 이민의 날이었던 5월 1일은 정교회력으로 부활 대축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맺은 휴전 협정이 깨지며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되었습니다. 시리아 제2도시 알레포에서는 병원이 폭격을 받아 의사와 어린아이 등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알레포에서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자원봉사단을 이끌고 계신 애니 데메르지안 수녀님께서 기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전 세계 정교회 아이들은 부활 선물을 받을 테지만 이곳 알레포 아이들 앞에 놓인 것은 (선물이 아닌) 관과 비석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제 가슴은 무너집니다. 부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은 하느님 밖에 없습니다.”

전쟁과 테러로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성내동성당 교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ACN을 위해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서경룡 아우구스티노 주임신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말씀과 가치

라틴어 단어 “movere”는 ‘움직이다’와 ‘격려하다’ 또는 ‘움직이게 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세상 끝까지 자동차가 달리고 자전거가 나아가고 바퀴가 돌아가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 해발 4000미터의 고도에서 성녀 라우라 몬토야(Laura Montoya) 수녀회의 파견 수녀님들은 인디언 원주민들을 찾았습니다. 이곳의 길은 매우 가파르고 험준하여 걸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페루의 아방카이(Abancay) 교구에 사는 원주민들은 대부분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수녀님들은 공영버스를 이용하시는데, 버스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출발하며 그나마도 일주일에 2번, 특정 지역만 집중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녀님들은 교구 내의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안데스 산맥 높은 곳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도 포함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정식 도로는 아니더라도 그럭저럭 운전이 가능한 길들이 가파른 산비탈과 골짜기 사이로 나 있습니다. 자동차만 있다면 라우리타스 수녀회 수녀님들은 세상의 이 특별한 ‘끝’을 찾음으로써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예수님 말씀을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이 이 척박한 산악 지역에 더욱 풍성하게 뿌려질 것입니다. 수녀님들이 보여주신 훌륭한 모범과 교육 및 보건 지원 덕분에 복음 말씀이 뿌리를 내리며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거운 짐을 싣고 갈 때에 말이나 노새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CN은 수녀님들이 사랑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현대적 운송수단인 자동차 구입비로 12,300유로(한화 2천만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조스(Jos)의 교리교사들에게는 10년 전 ACN으로부터 지원받은 픽업트럭인 지프 한 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프차는 고물이 다 되어 가는데다 5명밖에 탈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의 활동이 드문 이 지역에서 교리교사들은 눈부신 선교 활동을 해왔고 여성 교리교사 양성 센터는 나날이 발전해왔습니다. 현재 43개의 본당에서 파견된 여성들이 조스에서 4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양성 센터에서 2년 동안의 교육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30인승 소형버스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차량 가격은 만만치 않지만 라고스 항의 수입관세와 노골적인 비리 때문에 수입차 가격은 그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카이가마 주교님이 버스 구입을 위해 꽤 많은 금액을 기부하셨지만 주교님도 더 이상은 여력이 없으십니다. 무슬림들에 의해 여성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있는 이 지역에서 주교님의 지대한 공헌 덕분에 교리교사 양성 센터는 여성의 존엄성을 지키는 등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ACN은 버스 구입비용 잔금과 교리교사들의 활동을 위해 53,000유로(한화 7천만 원)를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말씀의 진리가 내포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경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르치기에 앞서 배워야만 합니다
- 교리교사 양성 센터에서의 재회.



험한 길을 오르내리며
복음을 전합니다.

유일한 이동수단인 오토바이
- 모잠비크의 고향 마을로
가고 있는 교리교사



다시 신앙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독립한 발칸 반도의 작은 국가 **코소보**(Kosovo). 이곳의 그리스도교 역사는 바오로 사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 지역을 여행하며 이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썼습니다.

그동안 코소보 사람들의 역사는 늘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박해, 추방, 억압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오스만 튀르크 제국과 이후 다시 공산 치하의 끔찍한 시절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 신앙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코소보의 가톨릭교회에는 본당 24개, 신자 6만 6800여 명, 사제 57명, 수녀 85명 등이 있습니다.

도데 게르기(Dodë Gjergji) 주교님은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곳 코소보에서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새로운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교님은 이를 ‘그리스도교 재신자화’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전에 세례 받았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식으로 가톨릭으로 되돌아오고 자신이 가톨릭을 믿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슬람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정한 무슬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이제야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할 있게 된 것입니다.”

수백 년에 걸친 튀르크족의 압제 하에서 코소보 알바니아인 대부분은 표면상으로는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종용 받았습니다. 그들이 요구받았던 것은 코란의 첫 장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드러내놓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채 가정에서 남몰래 가톨릭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은 ‘크립토 가톨릭’ 즉, ‘비밀 가톨릭신자’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코소보인들은 암울한 역사를 청산하고 남몰래 행해온 종교 의식을 당당히 거행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래 행해온 종교 생활 덕분에 종교의 자유와 관용에 대해 특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소보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독립전쟁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입된 더욱 급진적인 이슬람 분파가 현재 새로운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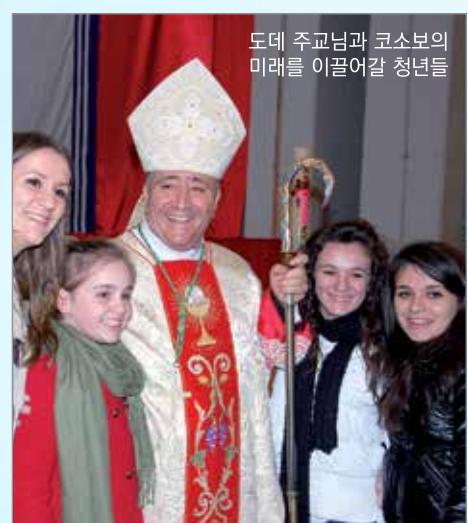
복녀 마더 테레사는 이러한 관용과 이웃사랑의 전통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심을 앞두고 있던 젊은 시절 데레사 수녀님은 코소보의 레트니카 성모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도데 주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더 데레사의 사랑과 관용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우리와 다르더라도 모든 이들을 한 형제로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프리스티나에서의 부활 미사



발칸 반도에서의 난민 문제에 직면하여 주교님의 말씀은 비단 코소보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난민 문제는 코소보의 가난한 교회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으므로 ACN은 이곳의 교회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습니다.



도데 주교님과 코소보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



사랑의 나자렛(야전병원)

“저는 오늘날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신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전투가 있는 곳마다 찾아가는 야전병원과 같습니다.”

안드레스 하라밀로(Andrés Jaramillo) 신부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내전 후 수십 년이 지난 콜롬비아의 히라르도타(Girardota)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야전병원’을 표방하는 형제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성심수도회는 절망한 이들, 상처받은 이들, 길을 잃은 이들, 영적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고자 합니다.

노인, 아이, 전쟁 피해자, 빈곤층, 노숙자, 난민 등을 위한 센터 및 인적 자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위기를 겪고 있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센터는 전무합니다. 학생, 주부, 관리자, 사무원 등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영적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외동딸을 잃은 롤라 로페즈는 마음이 갈가리 찢기고 상심이 너무 커서 공허 그 자체입니다. “눈물이 멎추지 않아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수 없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안드레스 신부님과 공동체는 그녀를 초대하여, 한동안 함께 하며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팔을 잡고 웃어주었습니다.” 마침내 롤라는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심 없는 무한한 사랑 덕분에 저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롤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은 많습니다. 형제회는 향후 콜롬비아 국내외에서 그러한 많은 야전병원을 태동시킬 모태가 될 회관을 건립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ACN은 회관 건립을 위해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50,000유로(한화 6500만 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곳은 ‘복음을 전하는 야전병원’, 기쁨, 희망, 사랑을 전하는 야전병원의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감옥 안에 전해지는 복음말씀

“하느님의 자비가 닿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2006년 2월 멕시코의 북부 국경도시 후아레스(Juarez)의 교도소를 방문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감옥의 재소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재소자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과 내적 변화를 시작할 길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그들에겐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표징이 필요하고, 미사와 성서를 통해 주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다시 설 수 있게 돋는 이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수많은 감옥에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잠비아의 리빙스턴의 교정사목 담당이신 로만(Roman) 신부님에게 120권의 성경을 공급했고, 케냐의 마우아(Maua)에서는 낙심자들의 수호성인인 성 유다에 봉헌된 소성당을 지을 수 있도록 제디엘 신부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자니아의 므베야(Mbeya)에서는 150명의 재소자들을 위해 이노센트 신부님에게 기도서와 성가책, 성경, 교리문답서, 비디오 및 기타 학습서 구입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출소 후 평신도 교리교사로서 교회에 봉사하려는 재소자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활동에는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 혹은 비슷한 성격의 사업과



“여러분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고 지옥을 경험한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 예언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님

많은 감옥에서 재소자들은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합니다. 많은 재소자들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비좁은 감옥에서 상습범과 함께 지내야 하고 푹푹 찌는 짬통더위에 반쯤 채워진 양철 컵의 물로 목을 축여야 하는 등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미아리나리보(Miarinarivo)에서는 니오르의 무염 시태회 수녀님들이 이 재소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재소자들 가운데 다수가 문맹입니다. 그들은 혐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소장에 지장으로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아그네스의 경우가 특히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아그네스의 남편은 살해당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시댁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남편을 죽인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서 서류를 한 장 가져와 아그네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아그네스에게 그 주장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고 결국 아그네스는 지장을 찍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서류는 아그네스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서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재판에 회부되어 살인죄로 1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수녀님들께서 아그네스의 딸 루시아를 어머니가 감옥에 수감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돌보고 계십니다. 수녀님들 덕분에 루시아는 이제 학교에도 다니며 비교적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가족사에도 불구하고 루시아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수녀님들 덕분에 루시아는
불확실한 미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우 행복하며 예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허기를 면하려고 뺑 한 덩이를 집었다가 감옥에 간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체포되어 법정으로 끌려왔습니다. 이제 수녀님들은 재소자들과 다른 이들에게 뺑을 전하며, 하느님의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많은 가정들이 재소자들과는 인연을 끊고 싶어 하므로 수녀님들은 가족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돋습니다. 또한 고아들과 가출 소녀들을 돌보며 노숙자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수녀님들은 가시밭길 같은 이 일들을 자난 몇 년 동안 묵묵히 수행해왔습니다.

수녀님들이 60여 년 전 처음 마다가스카르에 왔을 당시부터 거주해온 가옥은 이미 낡을 대로 낡아서 끊임없이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토네이도와 폭풍우가 훔쓸고 간 탓에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완전히 재건축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수녀님들은 시작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시아와 다른 아이들이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려면 수녀님들이 그 힘든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며 사랑을 전파하기 위한 기도와 공동체 공간이 필요합니다. ACN은 50,000유로(한화 6500만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책 한 권씩! 모든 교리교사에게 성경 한 권씩!”

이것은 콩고민주공화국의 성 바오로 선교 수도회의 작은 목표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키산투(Kisantu) 교구 인구의 3/4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렇지만 서점이 전무한 이곳에서 그리스도교 학교의 교과서와 성경과 교리문답서를 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느 곳을 막론하고 30개 본당과 학교들이 도시와 시골에 멀리 흩어져 있는데도 도로 대부분은 모래와 진흙으로 덮여 있어 통행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회 수사님들이 어디든 마다않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책을 전달하고는 있지만 지프차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분들이 아무런 장애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ACN은 지프차 구입비용으로 22,200유로(한화 2900만 원)를 지원하였습니다.



보물을 손에 넣은 듯 책을 받고
기뻐하는 키산투의 아이들.



체코의 프라하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도시 중 한 곳이지만 프라하 교회는 지난 백 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무신론자들의 탄압을 받으며 음지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이곳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종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년 전 프라하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소개하고 ‘교회와 신앙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키고자 길거리로 나왔고 프라하대교구장 도미니 두카 추기경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활동은 ACN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거리에서 청년미사가 집전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버스와 전철에서는 유인물을 돌리며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전하였습니다. 두카 추기경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하느님께로부터 서로 다른 선물과 축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무시당하거나 소외될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추기경님 말씀에 따르면 이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고 있는 분들은 바로 ACN 후원자 여러분이십니다.



국제 ACN 대표
요하네스 헤르만

Baron Johannes
von Heereman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온 사진들은 가히 충격적이며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멀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마태 10,28) 그리스도를 단단히 따르는 사람의 영혼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이자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특히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형제자매들을 지원하는 것도 그 사명의 일부입니다.

저는 회교도 신자들로부터 같은 무슬림은 탄압을 하는데, 오히려 ‘이교도’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정반대로 대한다는 것이 매우 놀랍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사랑의 하느님에 관해 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느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과 행위를 통해 이러한 진리를 증거하는 한, 유럽에 이슬람 극단주의가 만연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첫 월급을 시리아 형제자매에게

제 첫 월급을 시리아를 위해 ACN에 기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호주에서

여러분의 놀라운 활동을 위해

위털루의 성 베드로 바오로 가톨릭 학교 학생들이 선교를 위한 벼룩시장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수익금을 ACN에 기부하고자 하오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돋는데 써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활동을 계속 해나가시길!

미국의 가톨릭 학교 학생 일동

25년째 후원 중

100달러를 동봉하오니 고통받는 이들을 돋는데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5년간 ACN을 위해 기도하며 늘 함께 해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장기 후원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감사와 기도

30년이 넘는 협력과 주교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값진 프로젝트에 대해 ACN에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나가는데 앞으로도 ACN이 계속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은퇴 주교

심금을 울리는 소식

사랑의 메아리를 매번 받아들 때마다 미안하나마 후원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지금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박해받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듯이 이기적이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서구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호주의 후원자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교황청
재단

e www.churchinneed.or.kr
f [/aidtothechurchinneed](https://www.facebook.com/aidtothechurchinneed)
n [/churchinneed](https://www.instagram.com/churchinneed/)

